

광주FC 더위 날린 '골 잔치'...대전에 3-0 완승

K리그1 홈경기 김한길·정호연·이건희 연속 골로 연승 이어가 수문장 김경민 활약 무실점 승리...K리그2 전남, 부천에 1-0 승

광주FC가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골퍼레이드로 연승을 달렸다.

광주는 지난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1 2023 25라운드 홈경기에서 김한길, 정호연, 이건의의 골로 3-0 대승을 거뒀다.

24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1-0을 기록하며 3경기 연속 무승부 고리를 끊었던 광주는 휴식기 이후 진행된 첫 경기에서 연승에 성공했다.

전반 5분 수원FC전 결승골 주인공이었던 두현석이 왼발로 공을 때리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두현석의 슈팅이 대전 골키퍼 이창근에 막혔지만 2분 뒤 김한길이 골세리머니를 했다.

오른쪽에서 허술하게 공을 보내고 중앙으로 이동한 김한길. 허술이 논스톱 힐패스를 했고, 다시 공을 잡은 김한길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와 함께 김한길과 허술의 2호 골과 도움이 나란히 기록됐다.

전반 13분 '금호고 동문'이 공을 합작했다. 왼쪽 박스 안에 있던 엄지성이 뒤로 공을 넘겼고, 정호연이 왼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시즌 2호골에 성공했다. 엄지성의 시즌 2호 도움이기도 하다.

전반 35분 대전 주세종에 이어 2분 뒤에는 배준호가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2-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 17분 이건의도 득점 행진에 가세했다. 엄지성이 왼쪽에 있던 이건의에게 공을 넘겨줬다. 이건의가 중앙으로 공을 띄웠고 문전에 있던 이

건의가 뛰어올라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건의의 시즌 2호골, 이건의의 시즌 첫 도움.

3-0의 리드를 잡은 광주는 수문장 김경민의 활약으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후반 29분 마사의 중거리 슈팅이 광주 진영을 파고들었지만 김경민이 공을 푼데 안았다.

후반 39분에도 위기가 있었다. 주세종이 중원에서 길게 공을 올리면서 역습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경민이 달려나와 흐름을 끊었다.

후반 종료 직전에는 대전 변준수의 헤더가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위기를 넘긴 광주는 4번째 골까지 노렸다. 후반 추가 시간에 정호연이 띄운 공을 문전에 있던 티모가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다. 하지만 몸을 날린 골키퍼 이창근의 손 끝에 공이 걸리면서 경기는 3-0으로 종료됐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하고자 하는 축구를 일관적으로 지키려하지 않고 추가점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했던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대전스럽고 칭찬하고 싶다"며 "과감하게 골을 넣기 위해 박스 침투하고, 계속 중거리 슈팅 때리고, 크로스 올리고 준비한 대로 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팀이 수비적으로 안정되었다. 골키퍼 김경민과 함께 티모, 아론, 안영규, 두현석, 이민기 선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수비진이 뒤에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린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이 믿고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FC의 김한길(왼쪽)이 지난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1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남드래곤즈도 안방에서 승리를 신고했다. 전남은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2023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9분 나온 고태원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코너킥 상황에서 전남의 골이 만들어졌다. 왼쪽에서 발디바아가 띄운 공이 상대 수비 맞고 뒤로 흘렀다. 뒤에서 공을 잡은 김수범이 왼쪽으로 공을 보냈다. 이석현이 발디바아와 공을 주고받은 뒤 왼쪽 측면에서 길게 크로스를 올렸다. 이어 문전에 있던

고태원이 머리로 공의 방향을 바꿨고, 이내 부천의 골망이 흔들렸다.

전남은 이후 실점 없이 이 골을 지키면서 홈 무패 행진을 9경기(6승 3무)로 늘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체조 여왕' 화려한 부활 2016년 리우 올림픽 4관왕의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가 6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코어 하이드레이션 클래식에서 평균대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참가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기권한 뒤 2년 만에 돌아온 바일스는 복귀전 4관왕으로 내년 파리 올림픽을 기대하게 했다. /연합뉴스

신유빈, 하리모토에 설욕전...WTT탁구 리마 결승행

오늘 최츠 상대 올 두번째 우승 도전 전지희와 짝 이룬 여복도 결승 진출

신유빈(9위-대한항공)이 일본 유망주 하리모토 미와(14위)를 꺾고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캔턴더 리마 2023 결승에 진출했다.

신유빈은 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하리모토에게 3-1(16-14 11-8 9-11 11-9)로 승리했다.

지난 5월 열린 2023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함께 한국 선수로 36년 만의 여자 복식 은메달을 합작한 신유빈은 이후 WTT 캔턴더 라고스에서 단식과 여자 복식 2관왕에 오르는 등 한결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승리는 지난 6월 캔턴더 튀니스 단식 결승에서 하리모토에게 당한 패배를 두 달만에 갚은 것

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일본 남자 탁구 애이스 하리모토 도모카즈의 동생인 2008년생 하리모토는 일본 여자 탁구의 차세대 애이스 후보로 손꼽히는 유망주다.

신유빈은 자신보다 4살 어린 하리모토와 국제대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으로 대결한 캔턴더 튀니스 결승전에서 신유빈은 계속 끌려다니는 끝에 2-4(8-11 5-11 9-11 7-11 7-8-11)로 졌다.

신유빈이 리마에서 설욕하면서 둘의 통산 상대 전적은 1승 1패가 됐다.

신유빈은 기하라 미유(27위-일본)를 3-2(11-8 4-11 16-18 13-11 11-5)로 제압하고 올라온 베르나데트 쇠츠(16위-루마니아)를 상대로 올해 2번째 WTT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신유빈과 쇠츠의 첫 맞대결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7시 시작한다.

신유빈은 전지희와 짝을 이뤄 나선 여자 복식에

서도 결승에 올라 2관왕을 기대한다.

랭킹 1위인 신유빈-전지희 조는 이날 치른 준결승에서 프리타카 파바드-루츠 카미유 조(12위-프랑스)를 3-2(14-16 11-3 11-2 8-11 11-4)로 제압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결승에서 김나영(포스코인더내셔널)-최효주(한국마사회) 조와 챔피언을 가린다.

랭킹이 없는 김나영-최효주 조는 준결승에서 랭킹 11위 기하라-나가사키 미유(일본) 조를 3-2(11-6 4-11 11-13 14-12 12-10)로 물리치는 이번을 일으키고 결승에 올랐다.

남자 복식에서는 이상수-조대성 조(6위-삼성생명)가 크리스티안 카를손-마티아스 팔크 조(7위-스웨덴)를 3-2(11-1 11-6 2-11 7-11 11-8)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상수-조대성 조는 결승에서 미즈키 오이카와-마쓰시마 소라 조(246위)와 한일전을 펼친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GS칼텍스 도드람컵대회 우승

페퍼스는 3패로 대회 마무리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가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이하 컵대회)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GS칼텍스는 지난 5일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컵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1(26-28 25-23 25-13 25-21)로 역전승을 거뒀다. GS칼텍스는 이 승리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 컵대회 최다 우승팀인 GS칼텍스는 4년

연속 결승에 진출해 통산 6번째 우승을 이뤘다.

이번 결승은 GS칼텍스의 설욕전이기도 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일 조별리그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0-3으로 완패했다. 하지만 닷새 만의 재대결에서 설욕에 성공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47득점에 성공한 강소희가 기자단 투표에서 27표를 얻어 3표에 그친 유서연을 제치고 컵대회 최우수선수(MVP)가 됐다. 2017년과 2020년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로 컵대회 MVP를 거머쥔 강소희는 IBK기업은행 김희

진(2013-2015년)을 제치고 여자부 최다 MVP 수상자가 됐다.

표승주(IBK기업은행)가 기량발전상(MIP)과 김지원(GS칼텍스)이 라이징스타상을 받았다.

한편 새 사령탑 조 트란지 감독을 앞세운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3연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여자부 A조 1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1-3(17-25, 25-21, 23-25, 22-25)으로 패배를 기록했던 페퍼스는 2차전에서는 현대건설에 세트스코어 0-3(21-25, 16-25, 19-25)으로 졌다.

그리고 KGC 인삼공사와의 3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1세트는 가져왔지만 내리 3세트를 내주면서 세트스코어 1-3(25-14 10-25 18-25 19-25) 역전패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밀수

7월 29일 12:00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밀수
2관	비공식작전, 인시디어스: 빨간 문
3관	비공식작전, 엘리멘탈
4관	밀수
5관	더 문
6관	비공식작전
9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7관 싸대끼틀 엘리멘탈, 몬스터 패밀리 2,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8관 싸대끼틀 더 문,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파랑새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